

<한국 YMCA운동 10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 토론

박영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운동체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서울)YMCA의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 YMCA 운동 100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라는 주제 하에 19세기 말에 태동한 한국(서울)YMCA의 창립기에서부터 세대별로 분석 평가한 발제를 통해 파란만장한 한국(서울)YMCA의 100년사를 더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현대 문화사 그리고 현대 기독교사를 읽을 수 있었다.

평가에서 보면 한국(서울)YMCA는 100년간의 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세대마다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에 대한 분단한 자기성찰과 각성을 거듭해 오고 있다. 목적에 입각한 자기반성을 통해 YMCA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으며 바로 이를 밑거름으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2003년 10월 28일은 지난 한 세기의 YMCA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또 하나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축적한 YMCA의 업적, 공신력, 도덕성, 조직력, 지도력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YMCA가 지난 100년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의 효시이며 원형이었던 YMCA운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자가 특별히 100년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에서 관심하는 부분은 80년대에 이르면서 YMCA가 운동체의 성격에서 이탈하여 기구화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서울 YMCA의 경우 80년대에 이르러 프로그램 참여 연인원이 300만 명으로 일일 평균 8000명이나 될 정도로 다양다기화한 활동을 전개한 업적은 인정하지만 회원구조가 프로그램 회원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YMCA를 운동체로서가 아닌 기구로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유감이다.

주제발표의 맺음말을 보면 최근 들어 회원확대운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생협, 청년Y, 대학 Y, 시민회, 청년 클럽들이 대부분 해체되거나 활동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그 결과 서울 YMCA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는 회원동력과 회원지도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어서 운동지도력의 재생산력까지 무력해지고 목적에 근거한 운동체로서의 Y의 존립과 위상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YMCA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딜레마가 바로 목적사업추진과 재정 조달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시민이 신뢰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문화가 척박한 상황에서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재정투여가 필요한 목적사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MCA에게는 다른 것을 주문하고 싶다. YMCA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회원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청년운동, 국제적 운동체이다. 지난 100년간 축적한 저력을/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회원의 운동체로서 그리고 청년의 운동체로 회복하는데/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60-70년대 활발했던/대학Y운동을 되살려 내는 것이/그 한 예가 될 것이다. 변화된 세태를 잊고서 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그 양식은 다를 수도 있다. 80년대로부터 지금까지/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다수가/대학Y운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점은 또한 YMCA가/특화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타 시민단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YMCA 100년의 역사를 보면 YMCA는 이미 1922년 4월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북경 회의에/지도자들을 파송한 경력이 있다. 이 때에/토론자가 현재는 회원으로 속해있는/YWCA의 창설자인 김활란 박사와 김필레 선생도 함께하고 있었다. 한국 YWCA가 이 회의 직후 같은 해에/창설된 것으로 미루어/YWCA는 대학Y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Y운동은 어떻게 보면/기독교 운동 그리고 회원의 운동으로서/YW-YMCA 운동의 핵심주체세력이다.

60-70년대 활발했던 대학Y운동은/YMCA와 YWCA가 연대해서 이뤄낸 것이다. 여름마다 남녀 함께 하명회를 개최하고/수시로 모이는 워크숍/이들과 함께 한 기독교교수들의 모임/그리고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빈번한 국제회의를 통해/에큐메니컬 운동을 촉진하는 한편/Y운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YM-YWCA가 특질 재정문제로/대학Y운동의 문을 좁히면서 YM-YWCA가 동시에 기구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한국 YMCA는/100년의 역사성을/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창출해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우선적인 과제로 토론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기구화된 YMCA를 역동성 넘치는 회원의 운동체로 전환하는 것이다. 증가 추세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 회원들이/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필요한 것은/이들에게 YMCA의 결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서울 YMCA가 프로그램 참여 회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여성회원에게 동등한 자격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YMCA가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해가 되나/어쩌면 그것이 YMCA와 YWCA가 같은 기독교청년운동으로서의 동질성을 지닌/남매공동체이지만/오늘날에 와서는 원래 지니고 있었던/협조체제가 예전 같지 못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 양 운동체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회복된다는 것은/양 운동체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비롯하여/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주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YWCA에 속해있는 사람이기에 하는 것이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절실한 측면이 있다. 21세기는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기이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남녀청년들이/YM과 YWCA에서 지향점과 전략을 같이할 때 사회변혁을 위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YMCA와 YWCA를 함께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